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 확정

김제시, 열린 정책토론회 개최

김제시는 시청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시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자리인 '김제 3.0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로 4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실·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벽골제 하중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벽골제 하중도'는 벽골제 북쪽 원형 천 중앙에 위치한 약2만㎡ 크기의 섬으로, 수변을 따라 물레새와 갈대, 달뿌리풀 등이 자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벽골제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이 짚신에 들은 흙을 던졌던 곳이 산을 이뤘다는 '신탄미산'이 있는 등 역사자원의 활용가치가 높아 벽골제 연계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최근 관련 사업들이 불투명하거나 부지 변경 등으로 활용 계획이 모호해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먼저 올해 정비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벽골제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과 관광개발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벽골제 발굴 조사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확대 가능성과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원형을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단체협의회, 현장 탐방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익주)는 지난 12일 주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재생 발전의 현장을 탐방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전문화와 민관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통영의 통피랑 벽화마을을 방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로 변모한 미관상생 발전과 주민협력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통피랑 벽화마을은 통영시 청량동과 태평동 일대의 산비탈 마을로, 2007년 당시 재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일괄 철거로 가다미 잡혔던 지역이었으나, 푸른 통영의 추진협의회(현, 통영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와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독특한 골목 문화로 재조명 하기로 결의하고 문화와 삶이 어우러 지는 마을 만들기 통해 예향 통영을 재현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꾼 결과, 통영의 명물로 재조명 된 곳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극문양의 홍(紅)·청(靑)이 세계를 감싼 모습 표현... 축제는 9월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공식 포스터가 확정됐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는 가을하늘아래 코스모스가 황금달녁을 뒤덮고, 김제지평선 축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축제의 상징인 쌍룡과 태극문양의 홍(紅)·청(靑)이 세계를 감싸고 그 태극은 세계인이 함께 하는 지평선 축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1999년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자리에 오르며 현재까지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공식 포스터 선정에 4월중 김제역, 터미널, 시청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선호도 조사와 공모 및 SNS를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글로벌축제로 발돋움하는 지평선 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장 잘 형상화하였다.

한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는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festival.gimje.go.kr>), 블로그, 페이스북, 리후렛, 홍보용 전단지 등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되며,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에 배포되어 김제지평선축제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 확정을 통해 이제는 김제지평선 축제가 너도 나도 다가온 만큼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축제 도약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 축제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기억에 남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제=곽노태 기자

월동형 윈스톰 양배추, IR52 장영실상 제품 선정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아시아 종묘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아시아 종묘(대표 류경오)가 '월동형 윈스톰 양배추'를 개발하여 국내 종자업계 최초로 IR52 장영실상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IR52 장영실상은 'IR'은 Industrial Research의 약자로 기업의 연구성과를 발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52'는 1년 52주 동안 매주 1개 제품씩을 시상하여 당해연도 IR52 장영실상 수상제품 52개 중 기술적·산업적 성과와 파급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상으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영실'은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신제품개발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김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높은 심정지 발생 위험 요소를 가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김제시소방서와 공동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대처가 필요한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을 알고, 올바른 대처요령에 대한 인지수준 향

한 연구개발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품종만 재배해 오던 농민들은 내한성과 내병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윈스톰 양배추를 2014년 7월부터 아시아 종묘에서 보급하면서 일본산품을 제치고 원예종자 사업단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산품종의 우수성이 확보되면서 윈스톰 양배추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종자주권이 쇄도하고 있어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종묘는 할당강화 효과가 탁월한 미인꽃고를 개발해 농가 소득증대와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대상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일상생활 중이나 기타 응급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품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브랜드인지도가 높게 평가되어 지난 5.4일 나이스평가와 이크레이터를 기술평가에서 각각 더블에이(AA)를 받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아시아 종묘는 AAS 전미주품종상을 수상한 스위트베이버, 레드킹덤, 골드인폴드 컬러수박과 장영실상을 수상한 윈스톰 양배추로 국내외적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호남평야의 심장부 김제 평야의 생명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중자산업의 유기적인 상승기대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며 전세계 종자수출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갈 것이며 2020년 종자수출 2억불달성이 머지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민의 날 행사 성료

12일 완주군 삼례공설운동장에서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 12일 완주군 삼례공설운동장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군의회의장, 자매결연도시인 칠곡군 및 서대문구 등 기관단체장과 군민대상 수상자,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성일 군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 최초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수상, 2015년 대상 등 6년 연속 일자리 창출 우수단체, 자원봉사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는 물론, 전국 두 번째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민선6기 3년 동안 수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들 주민들과 소통·변화·열정으로 함께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 '다함께 열거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한 "테크노밸리 2단계,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전북 산업경제 1번지로서 발전시켜 모바일 완주 등 3대 비전을 가속화하고 어른복지와 미래세대 육성 등 2대 핵심사업을 중

점 추진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소신껏,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주민들이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자, 군수이며, 지방자치 권력 또한 주민들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제53회 완주군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문화교육분야 이종하(완주군청소년문화회집관장), 나눔봉사분야 김만우(완주군자원봉사센터 수지침봉사단장), 경제분야 강정래(푸드인완주마더쿠기대표), 애향분야 이종준(완주군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효열분야 후지다미다고(소양면 약암마을), 농림축수산분야 서승완(삼례읍 백두마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날 마지막 행사로 열린 완주군민 노래한마당에서는 지난 4월 22일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본선 진출자 16명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그리고 송대관, 현숙 등의 축하공연으로 펼쳐져 10만 군민이 상생과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

이날 마지막 행사로 열린 완주군민 노래한마당에서는 지난 4월 22일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본선 진출자 16명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그리고 송대관, 현숙 등의 축하공연으로 펼쳐져 10만 군민이 상생과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지역혁신가 사관학교 오늘 오픈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군이 그간의 노후 및 실무 전문가들을 활용해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육성에 발 벗고 나선다.

12일 완주군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역혁신가 사관학교'가 이날 15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상생과 연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이번 과정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민,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마련됐는데,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취업이나 창업에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대상이다.

사회적경제 사관학교는 로컬푸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푸드시스템 혁신가 과정,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혁신가 과정, 자유학기제

교육 혁신가 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1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푸드시스템 혁신가 과정은 완주군이 성공사회를 써 나가고 있는 완주군의 경험을 전라북도도 확산시키는 동시에 로컬푸드 등 지역푸드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완주혁신도시에 새롭게 로컬푸드직매장을 오픈 예정이며,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 사업부서에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력도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교육 혁신가 과정과 중간지원조직 혁신가 과정은 올해 6월과 9월 개설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동체협력과(063-290-2482) 또는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063-291-9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